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평창

2017년 9월 22일(금) 17: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9. 22.(금)	담당부서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
담당과장	정재환 팀장(044-203-4551)	담 당 자	서성민 사무관(044-203-4552)

아시아와 유럽, 보호무역과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키로

- 산업부,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성과 발표 -

1 9.21(목)-22(금), 서울 코엑스에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 아시아 유럽지역 11개 장관, 17개 차관 등 51개 회원 대표단과 WTO, OECD, UNIDO, ADB 등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약 250여명 참석

2 12년 만에 재개되는 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 이슈를 선도

○ 12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 협의채널 복원

○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

3 보호무역 공동대응을 위한「다자무역체제지지 공동선언문」채택

○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완전한 이행 독려, WTO MC-11 성과 도출 지지 등

4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발표

○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대응하여 ASEM 역내 협력 방향 제시

Indus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9월 21일(목)~2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쉽"**을 주제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7.9.21(목)-22(금), 코엑스 그랜드볼룸

◈ 참석자 :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의장), 아시아·유럽 50개국 경제·통상·산업 장관, EU집행위, 아세안사무국 등 각국 대표단 등 총 250여명

◈ 회의주제 :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

○ 이번 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백운규 산업부장관**, 벨기에(부총리), 룩셈부르크(부총리), EU 집행위, 프랑스, 인도 등 11명의 장관과 일본, 중국, ASEAN 사무국 등 17명의 차관 등 51개 ASEM 회원*에서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전체 53개 회원 중 몰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51개 참석

○ 또한, WTO, OECD, UNIDO, ADB 등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개회식)

□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SEM 차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응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ASEM 회원국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12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를 환영**하고, 이번 회의의 주제인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람중심의 소득 주도 경제정책방향**을 **회원국들과 공유**하였다.

○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ASEM 회원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및 주요성과)

□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회원국은 **①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②경제연계성 강화 ③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속에서 **ASEM 역내 향후 무역·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 금번 회의 **핵심 성과**로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금년 12월 WTO MC-11에서의 성과 도출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경제연계성 강화**) 아시아와 유럽의 **디지털 연계성 확대**를 위해서는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 ASEM 역내에서 진행 중인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등 연계성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ASEM 회원국들은 한국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SEM 역내 협력 방향에 대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고,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될 **ASEM 국제컨퍼런스**를 통하여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글로벌 노동규범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Indus

○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내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강조하였고 **파리 기후협정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계획)

□ ASEM 회원국은 **ASEM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회의는 **2019년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금번 회의의 **논의 결과 및 주요성과**를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서성민 사무관(☎ 044-203-45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장관님 기자회견 모두발언**

금번 ASEM 경제장관회의 의장을 맡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입니다.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이라는 주제 아래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 '경제적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확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금번 회의 개최를 통해 지난 12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 협의채널을 복원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먼저 금번 회의의 주된 세부 성과로서, 첫 번째 세션에서 ASEM 파트너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그리고 금년 12월 WTO MC-11에서의 성과 도출 촉구에 대한 일치된 합의로서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한 ASEM 역내 무역·투자 협력의 우선순위와 협력방향 마련을 위해 합심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에서 ASEM 파트너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디지털 연계성 확대를 위해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ASEM 역내에서 진행 중인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연계성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습니다. 특히, 파트너들은 ASEM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관련 교역·투자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Indus

5. 마지막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세션에서 ASEM 파트너들은 한국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SEM 역내 협력 방향에 대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고,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될 ASEM 컨퍼런스를 통하여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너들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글로벌 노동규범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파트너들은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내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강조하였고, ASEM 역내 파리 기후협정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6. 마지막으로, ASEM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차기회의는 2019년 유럽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번 회의의 결과는 201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결과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 다자무역체제지지 공동선언문

□ **선언문 의의**

○ 최근 **보호주의 조치 증가, 反무역 정서의 확산** 등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가치에 대한 위협 증대

-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불구,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장기 회복 전망**에 대한 **중대 리스크**로 작용

○ **MC11 3개월 前**임을 고려, 시기적으로도 **ASEM EMM 차원**의 다자체제 지지에 대한 **의지결집**이 매우 중요

☞ **한국의 제안**과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로 **별도 장관선언 채택**합의

□ **주요 내용**

○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강력한 지지** 확인 (Para 1, Para 2)

-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세계 번영과 포용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 인정과 WTO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
- WTO TFA 발효를 환영하고, 협정의 혜택 극대화를 위해 협정의 완전한 이행과 모든 WTO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

○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Stand-still, Roll-back 합의 동참** (Para 3)

- 보호주의와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중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식 → 보호주의 조치 동결과 새로운 조치 도입 제한에 합의

○ 최근 **반세계화·반무역 정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 필요성** (Para 4)

- 세계화와 무역의 비용과 효과에 대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대중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 세계화 효과가 보다 포용적 방식으로 공유되기 위한 정책대응 필요 확인

○ **WTO MC11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 선언** (Para 5)

- WTO 기능강화와 MC11 성공적 개최를 위한 ASEM 경제장관간 협력에 합의

Indus

참고 3 서울 이니셔티브

1 제안 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최근 **국제적 관심**이 **고조**

○ 파괴적 新기술을 통한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
→ 글로벌 **무역·투자 지형**에 **근본적 변화** 초래 전망

□ ASEM 경제에 **기회이자 위협** → **파트너들 관심과 공조**가 필요

○ 산업 혁신의 동인으로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되거나, 국가간 대응 역량의 차이에 따른 역내 **양극화 심화 초래** 가능성 공존

☞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ASEM 역내 협력 방향**을 제시

2 주요내용 소개 : 역내 협력원칙 +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SEM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 역내 협력은 국가·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성**에 기반

○ 기회 요인을 극대화 하는 **창의적·혁신적 환경** 조성과 국가별 장벽을 낮추는 **개방성**을 높이는 노력 중요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보장을 통한 성장 혜택의 독점화 방지 필요

□ ASEM 파트너들간 협력이 필요한 **핵심 정책방향**으로는,

①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 친화적 규제 프레임 구축**

* 신산업 규제시스템 사례 공유, 신기술 국제표준 개발 협력 등

②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 공공데이터 이전 등 역내 데이터 활용 논의 촉진, 사이버안전·사생활보호 연구 장려 등

③ 4차 산업혁명이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주력

* 유망 중소기업의 역내 밴처캐피털 네트워크 참여 촉진, 대·중소기업간 4차 산업혁명 활용에 관한 경험공유 등

④ **선진·개도국**간 **R&D 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격차 축소 유도

* 개도국 연구기관 참여 등을 통한 역내 R&D 협력 네트워크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별 R&D 정책 공유 등

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개발**

* 저숙련 인력 등 취약계층 재교육 강화, STEM 교육 모범사례 공유 등

3 협조 요청

□ 한국은 앞으로 **ASEM 파트너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우선, **'18년 3/4분기 중** '4차 산업혁명이 아셈 경제에 미치는 상세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 회원국 4차 산업혁명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업 등 참여 추진

○ ASEM 파트너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림

Indus

참고 4 **국가별 참석자 명단 [영문 알파벳 순]**

※ 53개 회원(한국포함) 중 51개 참석

No	회 원 국	수 석 대 표 (성명/직위)	비고 ★ 장관 ☆ 차관
★	한국	백운규 / 산업부 장관	의장국
1	ASEAN사무국	Hong Hin LIM / ASEAN 사무국 사무차장	☆
2	호주	George MINA / 외교통상부 차관보	
3	오스트리아	Michael SCHWARZINGER / 주한 대사	
4	방글라데시	Tofail AHMED / 상무부 장관	★
5	벨기에	Kris PEETERS / 부총리, 고용사회경제부 장관	★
6	브루나이	Erywan PEHIN YUSOF / 외교통상부 차관	☆
7	불가리아	Alexander MANOLEV / 경제부 국장	
8	캄보디아	Prachea OUK / 상무부 차관	☆
9	중국	Wang Shouwen / 상무부 부부장	☆
10	사이프로스	Christos GOGAKIS / 베이징 대사관	
11	크로아티아	Hrvoje CVITANOVIĆ / 주한 대사대리	
12	체코	Eduard MURICKY / 산업부 차관	☆
13	덴마크	Susanne HYLDELUND / 외교부 차관	☆
14	에스토니아	Juri SEILENTHAL / 외교부 국장	조정국
15	유럽연합	Cecilia MALMSTRÖM / 통상담당 집행위원	조정국, ★
16	핀란드	Markku KEINÄNEN / 외교부 통상차관보	
17	프랑스	Benjamin GRIVEAUX / 경제재정부 경제국무장관	★
18	독일	Stephan AUER / 주한 대사	
19	그리스	Ilias XANTHAKOS / 경제개발부 차관	☆
20	헝가리	István LEPSÉNYI / 국가경제부 차관	☆
21	인도	Suresh PRABHU / 상무부 장관	★
22	인도네시아	Bobby Chris SIAGIAN / 경제부 과장	
23	아일랜드	Julian CLARE / 주한 대사	
24	이탈리아	Marco DELLA SETA / 주한 대사	
25	일본	Kosaburo NISHIME / 경제산업성 차관	☆

26	카자흐스탄	Olzhas RAYEV / 주한 참사관	
27	라오스	Khemmani PHOLSENA / 산업경제부 장관	★
28	라트비아	Peteris VAIVARS / 주한 대사	
29	룩셈부르크	Etienne Schneider /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
30	말레이시아	Ka Chuan ONG / 국제통상산업부 제2장관	★
31	리투아니아	Albinas Zananavicius / 외교부 경제차관	☆
32	몽골	BATTSETSEG Batmunkh / 외교부 차관	☆
33	미얀마	Tun Tun NAING / 기획재정부 국장	
34	네덜란드	Ronald ROOSDORP / 외교부 국장	
35	뉴질랜드	Clare FEARNLEY / 주한 대사	
36	노르웨이	Dilek AYHAN / 무역산업부 차관	☆
37	파키스탄	Dulat BAKISHEV / 주한 대사	조정국
38	필리핀	Ramon LOPEZ / 무역산업부 장관	조정국, ★
39	폴란드	Tadeusz KOŚCIŃSKI / 경제개발부 차관	☆
40	포르투갈	Paulo FERREIRA / 경제부 차관	☆
41	루마니아	Harry-Ilan LAUFER / 기업환경·상무·창업지원부 장관	★
42	러시아	Aleksandr TIMONIN / 주한대사	
43	싱가포르	Poh Koon KOH / 산업통상부 차관	☆
44	슬로바키아	Milan LAJCIAK / 주한 대사	
45	스페인	Jose Luis KAISER MOREIRAS / 경제부 국장	
46	스웨덴	Ann LINDE / 통상부 장관	★
47	스위스	Markus SCHLAGENHOF / 연방경제정책청 차장	☆
48	태국	Winichai CHAEMCHAENG / 상무부 차관	☆
49	영국	Charles HAY / 주한대사	
50	베트남	Quynh Mai PHAM / 산업통상부 국장	

※ 슬로베니아, 몰타 불참
★ 11개국 장관, ☆ 17개국 차관 참석

Indus

참고 5 ASEM 경제장관회의 개관

1. 목 적

□ 아시아와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투자의 원활화, 산업협력, 민간기업과의 교류증진 등 양 지역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2. 추진경과

□ '16.7월 ASEM 정상회의(몽골)에서 우리나라는 '05년 이후 10여년간 중단된 ASEM 경제장관회의 재개를 제안

- '16.12월 제12차 ASEM SOMTI*(한국)에서 '17년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를 최종적으로 결정

* SOMTI : 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

□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출범('16.12)

* 「아시아 유럽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16.12 대통령 훈령 공포)

□ '17.4월 제13차 ASEM SOMTI(서울)를 통해 제7차 ASEM EMM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안, 행사포맷 등에 대해 논의

3. ASEM EMM 개최연혁

시기 · 장소	주요 논의의제
제1차, 97년 마쿠하리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무역·투자 / WTO / 인프라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제2차, 99년 베를린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WTO / 향후 계획
제3차, 01년 하노이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강화 / WTO / 세계경제
제4차, 02년 코펜하겐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DDA 협상 지원 / ASEM 경제협력의 미래방향 / 세계경제
제5차, 03년 대련	DDA 협상지원 / 경제협력 / TFAP · IPAP / 세계경제
제6차, 05년 로테르담	아시아-유럽 경제관계 / DDA협상 지원 / 세계경제의 기회와 도전 ⇨ "경제장관회의 관련 고위급 회의"로 대체하여 개최

참고 6 **ASEM (Asia-Europe Meeting) 개관**

1. 개 관

☐ **창설** : 아시아-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의체로서 '94년 창설

☐ **특징** : 별도 사무국이 없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컨센서스에 의해 합의 도출

☐ 3대 협력 분야

○ 정치대화 : 정치 및 안보 분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

○ 경제협력 : 상호 무역 및 투자확대 추구

○ 사회·문화 협력 : 인적 교류확대, 상호 이해증진, 문화적 유대 강화

☐ **ASEM의 위상** : 세계 인구의 62%, 교역량의 64%, GDP의 57% 차지

2. 회원국 (51개국 + 2개 지역협의체)

☐ **아시아(22)**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이상 NESA 11개국) 및 ASEAN 10개국 + ASEAN 사무국

☐ **유럽(31)** : EU 회원국 28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 EU집행위

3. 주요 회의

☐ **정상회의** : 제1차 정상회의('96년, 방콕) 개최이후 매 2년마다 개최

* 제11차 정상회의('16.7월, 몽골 울란바토르)

☐ **장관회의** : 외무장관, 재무장관, 경제장관회의 등이 매 2~3년마다 개최

※ 한국 개최 실적 : '00년 정상회의(서울), '08년 재무장관회의(제주), '16년 문화장관회의(광주)

☐ **조정국*회의** : 지역별 의견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 수행

* 아시아 :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NESA) 1개국 + ASEAN 국가 중 1개국
유 럽 : EU 집행위 + EU 순환 의장국

※ '17.9월 기준 조정국 현황 : 필리핀, 파키스탄 / EU 집행위, 에스토니아